**과제문①**

**해님과 바람 이야기**

어느 날 해님과 바람 사이에 큰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까닭은 누가 더 힘이 세고 재주가 뛰어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급한 바람은 해님에게 말다툼만 할게 아니라 내기를 해서 결정을 짓기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승부를 결정해야 할지 몰라 그들은　잠시 망설이며 땅 밑을 내려다보다가 한 나그네가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해님도 금방 찬성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온 힘을 모아 있는 힘껏 나그네에게 바람을 불어 젖혔습니다. 그러나 거센 태풍이 일어나자, 나그네는 중얼거리며 외투 자락을 단단히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는커녕 나그네의 경계심만 더 높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해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님은 뜨거운 볕을 내리쬐어 차가운 바람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날씨가 도로 좋아졌네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해님은 신이 나서 더욱 세게 볕을 쬐었더니 아주 한여름 같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입었던 외투를 훨훨 벗어 들고 땀을 씻으면서 걸어갔습니다.

課題文①

**お日様と風の話**

ある日、お日様と風の間で激しい言い争いが起こりました。その訳はがもっと力が強く、能力が優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でした。

気の短い風はお日様に言い争いばかりするのではなく、け事をして決めようと言いました。しかしどのように勝負を決めたらいいのかわからなかったらは、しばらくためらいながら下を見下ろしたら、ある旅人が歩いているのを見つけました。

それで風は旅人のコートをがした人が勝つ賭け事をしようと言いました。

お日様はすぐに賛成しました。

風が先に始めました。

風はすべての力を集め力いっぱい旅人に風をき出しました。しかし激しい台風が起こると、旅人はぶつぶつとづぶやきながらコートのをしっかりつかんで歩いていきました。

旅人のコートを脱がせるどころか、旅人の心をもっと高める結果となりました。

さて、お日様の番になりました。

お日様は熱い日差しを照り付け冷たい風をしのけました。 すると旅人は天気がまた良くなったとひとりつぶやきました。

この言葉を聞いたお日様はかれてさらに強い日差しを照り付けたところ、真夏のような天気になりました。

すると旅人は着ていたコートをさっさと脱いでをきながら歩いて行きました。